

R&D 투자 증대와 효율성 향상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의 성과라도 되듯이 최근 국내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 양상을 띠고 있다. 소비가 늘고 증시가 호황 기조인 것이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6%대까지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장래를 예측할 때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이루어진 급격한 경기 침체와 규모 축소를 감안해야 한다. 경제 지표의 단순한 등락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느냐가 국내 경제의 미래를 평가하는 더욱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경제 사회 시스템 등이 성장 잠재력의 현재 수준을 결정한다. 하지만 동태적인 측면에서 각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핵심 요소는 연구 개발(R&D)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자원을 투입하여 미래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활용하여 이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식 창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줄 연구 개발 투자가 수년간 감축되고 있어 국내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이 염려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식 기반 경제 구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연구 개발 투자가 98년에 31.8% 감소한데 이어 99년에는 37.6%가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과 같은 국내 주력 산업들이 연구 개발 투자를 급속히 축소하고 있다. 연구 개발 투자의 감소 추세 속에서 연구 인력들도 연구 현장에서 떠밀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처럼 연구 개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 부족이다. 경기 부진 속에서 수익력이 약화되고 구조 조정을 위한 경비 절감 노력으로 연구 개발 투자 재원이 작아진 것이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투자 성과에 대한 불신이다. R&D 투자가 단순 비용 지출 부문이라는 생각이 클수록 불황기에 이에 대한 지출 감소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R&D 투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미래 투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는 경기의 부침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얼마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것과 같은 확실한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연구 개발 투자의 양적 증가 못지 않게 그 성과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각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80년대 이후 '강점 강화, 약점 보완'이라는 전략에서 '강점 강화, 약점 포기 혹은 제휴' 전략으로 전환하여 각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워 나갔다.

셋째, 연구 개발 체제가 보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産學研 연구 공조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과 기업간 연구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간 연구 개발 공조 체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분야별 연구 인력과 연구 실적의 DB화, 논문 중심의 교수 평가 체계 개선, 산학연 연구 단지 조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각 부문에서 창출되는 연구 개발 성과를 손쉽게 상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및 자금 지원 조건이나 절차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준비는 R&D 투자의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